

# 4

## 명랑사회, 복지사회의 윤활유

필연코 사회활동을 통한 주부의 보람은  
참으로 값진 것이다.

이 얼마나 고귀한 보람일까.

### 사회참여의 갈망이 욕구

오늘의 주부들은 우리 어머니나 할머니들이 살아간 율타리 밖을 벗어나 보지 못한 일생과는 다른 삶을 살고 있다. 그것은 현대의 주부들에게는 가정의 일원으로서 뿐만 아니라, 사회의 일원으로서 살아야 하는 의무와 책임이 부과되어 있기 때문이며 그들은 그러한 삶을 통해서 또 하나의 보람을 찾고 있다. 고도한 과학기술의 발달과 급격하게 발전하고 있는 현대의 인간생활의 양상과 여건은 특히 여성생활에 크게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그중에서도 가정생활의 주역자인 주부들의 삶을 크게 변동시켜 주었다. 계획된 자녀출산을 비롯한

해가족의 선택과 자녀의 양육 및 교육, 또는 의식주의 여러가지 문제해결의 기회화 내지 사회화는 종래 가정에서의 주부들의 가사노동의 면모를 달리하였고, 따라서 노동력을 상당량 감축시켜 (여가)라는 선물을 주부들에게 안겨주었다. 현대의 산업구조의 요청에 의하여 여성들의 잠재력을 산업전선에 투입할 것을 자극하는 한편, 사회변천과 여성에게 주어진 교육의 기회가 함께 작용하여 여성들의 심층심리 변화를 일으켜 여성들의 사회적 관심과 성취에 대한 욕구, 그리고 사회참여에의 갈망을 높여 주어 혼전여성들은 물론 주부들도 상당수 직업전선에 진출하고 있다.

주부들의 사회활동 참여는 현대인의 하나의 존재양식이며 자기 실현의 방편으로서 불가결의 일로서 권장되어야 하며 크게 들로 구분하면, 직장인으로서는 유급사회활동과 사회개헌을 목표로 하고 있는 민간사회단체의 일원으로서의 무급사회활동을 들 수 있겠다. 주부들이 어떠한 형태의 사회생활에 참여하건 간에 참여하므로써 가정과 개인생활에 있어 보람을 찾게 되며, 적어도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강제로 하지 않고 이 자발적이고 자유롭게 선택되어져야 하며, 시간적·경제적·또는 능력면에 있어서 그 부담에 무리가 없어야 하고, 생활과 삶에 관계된 것으로 실제적인 이익을 갖는다 주는 활동이 되어야 함은 두 말할 것도 없겠다.

과연 오늘의 상황에서 보람을 찾을 수 있는 사회활동참여의 여건이 주부들에게 마련되어 있는가? 이것은 하나의 선결되어야 하는 당면과제



朴英淑  
〈前여성단체협의회사무처장〉

앞에 놓여 있다.

## 사회생활과 가정을 동시에

주부란 그 성격이 말해주듯이 가정을 운영하여야 하는 책임을 가지고 있다.

아무리 현대인으로서는 사회의 일원으로서의 역할을 하려고 하나 가정의 여건이 허락치 않으면 불가능하다. 그렇다고 어느 한쪽을 포기한 주부도 합리적인 주부는 될 수가 없다. 왜냐하면 현대의 가정생활은 가정만으론 독립된 생활일 수가 없다. 급속도로 변천하는 사회에 적응하고 가정복리를 이룩하는 지혜도, 열쇠도, 사회가 지니고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그러기에 주부들의 관심은 필연적으로 사회로 향하게 되며 가정을 보살피는 열성과 정성으로 사회개혁에도 임하게 될 때, 한 여성은 현명한 주부로서 또한 하나의 인간으로서의 자기실현을 가능하게 할 것이고 여기서 보람을 찾게 될 것이다.

오늘의 주부들이 사회활동에 참여하므로 사회의 일원으로서 얻은 보람은 나는 다음 몇가지로 들고 싶다.

첫째로 자기개성의 계기가 된다. 가정생활이 갖어다주는 일상성은 경우에 따라서는 주부들을 질식할 수 밖에 없는 처지에 몰아 넣는다. 생활이 편리해지면 질수록 생활은 단순해져서 똑같은 일과 짜 1년을 반복한다. 권태로움으로 시작되는 증상이 짜증으로 변하고 마침내는 바가지급은 아내로서, 신경질적인

엄마로서, 화기가 넘쳐야 할 가정은 생지옥으로 탈바꿈을 하게 되는 경우가 있다. 가끔 사회단체에서 보는 주부들의 고백을 통해서 사회활동에 참여함으로써 여유가 생긴 자기 모습을 찾았다는 말을 들곤 하는데 주부들도 예외없이 생활의 변화를 요청하기 때문이다.

둘째로 자기반성의 계기를 얻을 수 있다. 가정 안에서만 생활하는 주부들은 쉽게 이기적이 되기 쉬우며 이기적인 사고방식은 많은 불만을 품게 하고 극도의 욕구불만은 자기불행은 물론 온가족의 불행을 초래한다.

## 가장 값진 보람을 찾는 길

가정에서 이웃의 삶을 엿볼 수 있는 기회란 TV를 통해 보는 수가 고작일 것이다. 사리의 판단없이 그러한 사실들을 받아들이다 보면 자기 가정만 뒤쳐져 있는 것 같은 착각에 걸리기 마련이다. 이러한 주부들이 사회활동에 참여하면서 자기반성이 생겨지며 올바른 판단력을 가지게 된다. 자기도 공동체 속의 하나임을 깨달으며 많은 사회문제를 정확하게 알므로 해서 행부의 개념을 달리하게 된다.

셋째로 주체적인 대화자가 된다. 가정에는 주부들이 사회를 알 수 있는 계층이 그 남편뿐인 경우가 많을 것이다. 그것을 보다 넓혀 자기가 직접 사회를 관찰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므로 주체적인 자기를 형성해온 남편, 또는

자녀들과도 주체적인 대우를 받고 사회의 한 단위인 가정전설도 주체적으로 이룩할 수 있게 된다.

남편의 사회와 너무 단절된 상태에 있는 주부들의 고민을 우리들은 많이 듣고 있는데 피동적인 입장에서 한 번 자리를 옮기는 일을 사회참여로서 성취할 수 있을 것이다.

네째로 남편의 예측불에서 탈피할 수 있는 지력을 지니게 된다. 유급사회활동을 하는 주부들에게 가능성이 보다 크겠으나 주부들도 인간으로서 언제나 독립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유하고 있지 않는 한, 주체성 있는 인간은 되지 못한다.

주부모임·어머니모임·자모모임·종교모임·직장별 모임이 있는가 하면, 문제별로 구성된 집단도 있다. 소비자보호·환경보호·인구문제·여성문제·지역사회개발 등 들 수가 있으며, 이러한 각종모임을 통해 주부들은 가정생활과 사회생활을 동시에 충족시킬 수 있고 보다 넓은 삶을 영위할 수 있는 보람을 찾을 수 있게 된다.

주부의 보람, 특히 사회활동을 통해 얻는 보람은 좀더 넓고 크고 깊을 것이다. 사회참여란 자기 자신을 위해, 또 가정을 위해 발전을 가져오며 이 속에서 주부는 자신의 위치와 의무, 그리고 주부로서의 만족을 얻어갈 것이다.

필연코 사회활동을 통한 보람은 값진 것이다. 그것을 통해 주부는 좀더 높은 차원의 사고와 행동으로 자신을 키워 나갈 것이다.

이 얼마나 보람된 일인가. (\*)